고 강원룡 목사님

(평생교육의 선구자, 예술인재 키워내다)

박 영 숙 한국예술진흥원 이사장

나는 6·25 전쟁 때에서 태평양전쟁등의 전쟁터기를 들어온 데대로의 강목사님을 알게 된것은 6.25 사변을 부산피난시절 대학YWCA회원으로서 기독학생운동에 가담하면서 였다. 그때당시 해마다 개최된 YM-YWCA대학생 수련회라고 하는 기독학생들의 여름캠프에 목사님은 초빙강사 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대학졸업후 YWCA의 실무자가 되어 대학생부간사, 연합회 총무직을 거치면서 다양한 기독교관련기관의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1959년 목사님이 자금의 크리스챤 아카데미의 전신인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을 세우시면서 나에게 감사직을 맡게 하셨고 계속해서 목사님이 추진하는 많은 일들을 50년대 가까운 지금까지 옆에서 지켜보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격동기를 지나 걸어오시는 한평생동안 역사를 꿈에 보며 열린정신과 역사는 흐름속으로 우리사회와 대학캠퍼스의 구비마다에서 통찰력 있는 생각을 제시하고 비전을 세우는 방법으로 대화를 강구하여 갔으며 이나라의 민주사회의 기틀마련에 힘써오셨고 항상 역사의 현장에 앞장서 계셨다. 이러한 목사님의 모습은 인재들을 배출해 냈다.

목사님의 평생 업적을 기억한다면 민주화와 인간화 그리고 양극화해소를 대화를 통해 풀어 가려는 노력이다. 종교, 예술, 노동, 환경, 지방자치, 문화, 예술 평화, 행정, 정치, 남북 등의 대립으로 있는 사회 각분야에 팽팽한 대립을 이루어 주셨을 때에는 해방후의 정치가들만이 아니라 각계각층이 함께 힘쓰는 국부론의 인재들이 무궁한 역할을 하고 종합적인 사고를 함께 하는데에 큰 도움이 되었고 특이한 점이다. 목사님과 대화모임의 멤버의 창립은 한국사회의 민주화운동을 촉매하는 기회를 갖게 하므로 해외 정보지식계층 또는 당정책층의 교육효과를 일으켜 주었다.

목사님이 누구보다도 학력이 예상을 깨고 예술계에 관심을 갖아왔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사회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화랑주부를 비롯해서 서예술가, 작가화가로 고위행정관료, 판검사, 정치인,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예술세계를 이끌어온 창의력인 예술인이 크리스챤 아카데미 대화모임의 평생교육 또는 종합적인 교육과정을 거친 사람들이다.

지식기를 예술의 시기라고 한다. 그리고 예술에게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다. 예술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라고하는 것보다 인재가 예술계로 모여들고 있는 예술의 시대라는 기대감이 더 커졌다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70년대의 목사님의 예술에 대한 혁명한 예견은 한국예술교육의 주춧돌이며 귀중한 이정표라고 인정한다. 한 위대한 생각을 하는 지도자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여실히 깨닫게 해주고 있다.

나는 말주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해에 해방을 맞이 했으며 고장인 다양으로 귀향하고 2년이 채못되어 남한으로 내려와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생활은 부산 피난지에서 공부하며 전쟁고아로, 농촌계몽활동등의 시간을 빼앗기는 등 제대로의 교육과정을 거치지 못한채 사회인이 되었다.

목사님이 개최한 대학생 수련회 종교, 예술, 환경, 세계의 실태에 관한 토론회에 이르기까지 내가 관여하고 있는 분야의 모임에 예외없이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셨고 또한 내가 속한 학생회의 노력 봉사의 결실을 맺게 된 평생교육의 기회였다. 그렇게 주어진 학습의 혜택과 일에서 오는 상황판단을 제대로 하게 됨으로 해서 내가 세상사회에 적응하기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극복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기회제공은 내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목사님과 인연이 있는 모든이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목사님은 평생교육에서 예방적이며 교육적이고 평생교육의 원칙과 목적에 의거하여 개개인의 능력을 열어 주로 스승이며 우리의 지혜를 어느때 보다도 '빛으로 소금으로 필요할때 달려갈수 있다'는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다.